



■ 안철수 의원의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의지 표명에 대한 환영보도(2017. 3. 16)

## 안철수 의원의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하며, 대선 교육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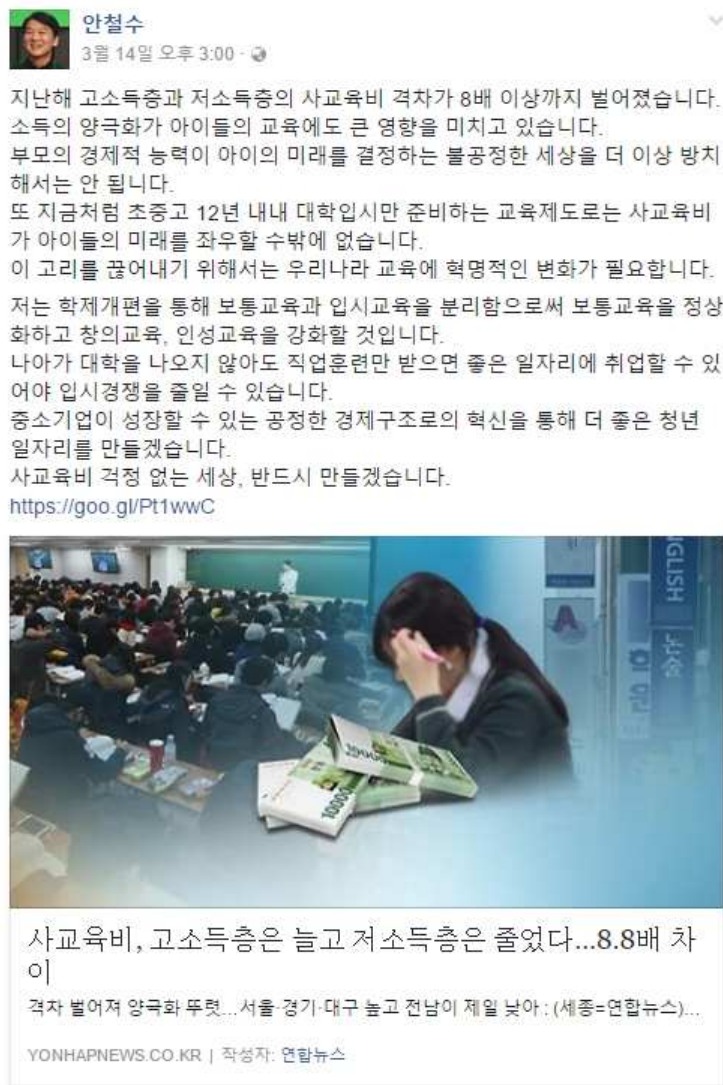
- ▲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3월 14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를 적극 환영함.
- ▲ 안철수 의원이 이를 밝힌 것은 당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매우 심각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느낀 것으로 보임.
- ▲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1만 2천원이 폭등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 안철수 의원은 단지 SNS에 일회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랍.
- ▲ 또한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라 19대 대선에 출마의 뜻을 가진 모든 대선 예비 후보들 역시 사교육 고통과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공약 제시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당을 떠나서 국민 고통 해소의 핵심적 문제인 ‘사교육의 근본 해소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을 촉구함.

안철수 의원은 3월 14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이번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된 언론보도를 링크 걸면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5월 9일 치르게 될 19대 대선에 나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오랜 숙원인 사교육비 해소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

력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졌다.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학제 개편을 통해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 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업 훈련만 받으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경쟁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1] 3월 14일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당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데에 연유한 것입니다. 현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재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내실화 두

배'라는 대선 교육공약을 내걸고 재임 초기 '어린쥐' 파동으로 급격히 오른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매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임기 말에는 임기 초 수준 가까이로 끌어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한 해에 학생 1인당 1만 2천원이라는 초유의 증가액을 보였고, 지난 4년간 총 2만원을 증가시켜 1인당 25만 6천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에 의한 사교육비 격차 수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월 소득 100만 미만인 가구와 월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무려 8.8배에 이릅니다. 2015년 6.4배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고교생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는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입시 교과 전과목의 사교육비 증가가 엄청납니다. 수학은 7천원, 영어 5천원, 국어 5천원, 사회·과학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액도 6천원으로, 고교의 예체능 사교육은 입시 대비 사교육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결국 입시 사교육비만으로 학생 1인당 2만 6천원이 오른 것입니다. 초·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소 떨어진 것에 비해 고교생의 참여율은 2.3% 올라 참여학생의 비율 및 부담하는 사교육비 모두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감소한 것은 자평하면서도 고교의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내놓지 않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 선 우리 국민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느 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세계 1위의 출산율 저하, 노후 대비 제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해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생아 수 감소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96.1%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후엔 세계 제 1의 노령화 국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담 해결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더구나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대에 지식 암기 중심 사교육은 백해무익하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대통령을 자임하는 대선 후보들로서는 더더욱 사교육 문제 해결을 비켜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때에 안철수 의원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과연 사교육비의 실질적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제 개편으로 창의교육, 인성교육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학제 개편이 되면 입시 경쟁이 방지되고 창의교육이 자동적으로 되는가? 아닙니다. 학제 개편이 어떻게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게 되는지 그 논리적 경로를 어디에서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제 개편이라는 하드 웨어 개편이 가져 올 엄청난 혼란과 불필요한 낭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목적에 맞는 정확한 대책과는 더욱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국민 사교육비 조사에서

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원인으로 밝힌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채용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 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은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과 촘촘한 점수로 한 줄 세워서 학생을 뽑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적 대학입학제도’를 대신 공약화하고 이를 초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 4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4개의 관련 법안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총 77명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촘촘한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를 넘어선 일정한 학력만 갖추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혁신적 대학입학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사회에 제안하였고, 3월 22일 본격적인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습니다. 민간 시민단체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야겠다고 수년 간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 주겠다 출사표를 던지는 19대 대선 후보들이야말로 사교육비 해소에 발 벗고 나설 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방안이 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및 ‘혁신적 대학입학제도’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이번 대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선 경쟁을 넘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국민 고통의 제1 요소인 사교육비 해소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